

“광주서도 C-랩 시작...창업도시 소중한 씨앗”

강기정 시장 CES 삼성 C-랩 전시관 깜짝 방문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들과 지원 등 협력방안 논의

강기정 시장과 광주방문단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3 삼성 C-랩 (LAB) 전시관을 찾아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만났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현지 시작 지난 7일 CES 2023 삼성 C-랩 전시관을 찾아 삼성전자 관계자로부터 C-랩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율주행 로봇업체 뉴빌리티 ▲메타버스 콘텐츠제작 3D 디자인 SW 엔터테인먼트 ▲전자약 플랫폼 개발 셀리코 ▲메타버스 콘서트 플랫폼 풀카믹스 등 CES 2023에 참가한 청년 대표들을 만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은 인공지능(AI)·의료 등 광주 주력산업과 C-랩 스타트업 기업 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 대표들과 실증 지원, 박람회 협업 등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시장의 삼성 C-랩 전시관 방문은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하

지만 삼성전자가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삼성 C-랩 아웃사이드를

올해 광주에서도 시작하는 만큼, 선배 C-랩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강 시장의 뜻에 따라 방문이 이뤄졌다.

강 시장은 “광주에서 곧 시작될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사업은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실현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며 “C-랩 사업에 참여한 광주 기업을 CES에서 만날 날을 꿈꾼다. 광주 스타트업 창업가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일상 기자



강기정 시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 유레카 파크 삼성전자 C랩(C-Lab) 전시관을 찾아 청년스타트업 대표들을 격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보다 경제공동체 모색 “별미 가득한 남도로”...전남 추천 관광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보다는 경제공동체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9일 광주전남 공동(나주)혁신도시에서 자리한 광주전남연구에서 시·도 행정통합 논의에 관한 연구 위탁사업 최종 보고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광주시 행정부시장·기획조정실장·광역협력담당관, 전남도 행정부지사·기획조정실장·자치행정국장 등 시도 공무원 10여명과 연구진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용역보고회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곡·경북 행정통합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당장 실익이 없다는 시·도가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도는 경제공동체로서 시너지 효과 방안을 적극 모색하

고, 논의 중인 행정통합은 큰 틀에서 향후 유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도 이러한 맥락에서 “광전연은 행정통합을 염두에 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도 검토했지만, 독자체를 설립하지 않고도 시·도가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광전연 최종용역보고서는 1월 말 완성된다. 분량만 700페이지 넘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종용역보고서는 양 시도가 논의해서 공개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10월 6일 민선8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과 관련해 “쓰레기 처리 문제, 광역상수도, 광역교통 등 특정 사업 부분을 다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전남도가 9일 ‘겨울 입맛 돌구는 별미 따라 전남 한바퀴’ 관광지 4곳을 추천했다.

1월 별미 추천 여행지로 선정된 곳은 담양 창평 전통시장 국밥거리, 보성 벌교 꼬막거리, 신안 송공항 김국, 해남 두륜산 버섯전골 거리다.

담양 창평 국밥거리는 1919년 창평 전통시장 개설과 함께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이곳 국밥은 국과 밥이 따로 나온다. 폭 끓여낸 돼지고기 국물과 옛날 방식으로 만든 순대의 조합이 일품이다.

보성 벌교 꼬막 거리에선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8도 진미 벌교 꼬막을 맛볼 수 있다.

찬바람이 부는 때가 제철인 꼬막은 삶이 통통하게 올라 삶든, 무치든 어떻게 조리해도 바다향과 함께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꼬막으로 만든 조무침, 비빔밥 등 다양한 꼬막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신안 송공항 김국은 예로부터 전해 온 양식 기술로 생산한 신안 물김으로 만들어 국물이 담백하다.

김 채취 시기인 요즘 물김으로 끓여낸 국물은 바다의 풍미를 진하게 느낄 수 있어 겨울철 대표 별미로 꼽힌다.

주변에는 천사섬 분재공원, 수석미술관, 세계조각박물관으로 꾸며진 1004 무지엄파크,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반월·박지도(떠플섬) 등 이색 해양관광자원이 많다.

해남 두륜산 허두부 버섯전골은 고기와 버섯, 두부를 푸짐하게 넣어 끓이는데 버섯에서 우러난 담백하고 깊은 맛의 육수에 채소와 고기가 더해져 맛의 풍미가 깊다.

주변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천년고찰 대흥사, 명품산책길 달마고도 등이 있다. /박종배 기자

수돗물 사용량 절감 위해 저수조 청소 유예

광주시, 수질검사 제출 맨 최대 2개월 연장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씩 시행하는 대형건축물 등 소유자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극심한 가뭄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절감 차원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환경부에 ‘내년 우기까지 수돗물 공급 위기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저수조 청소 유예’를 건의했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수조 청소를 불가피하게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월 범위 내에서 저수조 청소를 유예할 수 있음을 안내했

다.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3가지 항목(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탁도)의 수질검사 기준 충족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각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3가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기한 연장 없이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한다.

올해 6월 안에 수질검사 충족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기존과 같이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6월 이내에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조일상 기자

ACC, 한국관광 100선 2회 연속 선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국내 관광명소에 2차례 연속 선정됐다.

ACC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고 9일 밝혔다.

ACC는 지난 2021~2022년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된 바 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과 외국인들이 찾아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1차례 뽑아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한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무등산국립공원과 5·18기념공원, 양림동역사문화마을, 순천만국가정원, 죽녹원도 포함됐다.

ACC는 아시아 관련 전시·공연·교육·축제 등 매년 280여 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지난 7년 동안 1316만 명이 다녀갔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문화예술 관광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친환경 재질’ 어선건조 시장 주도권 확보

전남도가 고층 도양읍에 전국 최초로 어선건조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친환경 재질’ 어선 건조국제표준화 추진을 통해 국내외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전남도는 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어선건조 정부정책 방향과 현장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학, 국책연구소, 어선검사 기관, 수협중앙회, 민간연구소, 어선 건조업체, 고흥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어선 건조 정부정책 방향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어선건조에 필요한 집적화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수조시설, 성능계측장비 등 기술지원시설을 비롯해 3D프린터, 몰드 제작시설 등 생산지원시설, 이동식 크레인, 트레일러 등 물류지원시설, 연구소, 검사소 등 관리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전남은 전국 어선 6만5000척 중 42%인 2만7000척을 점유하고 있다. /박종배 기자

을 비롯해 전기·도로 등 기반시설 규모,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어선어업 현황, 해상폭력단치 내 어선 안전조업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올해 세부적인 설계도 마련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어선건조에 필요한 집적화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수조시설, 성능계측장비 등 기술지원시설을 비롯해 3D프린터, 몰드 제작시설 등 생산지원시설, 이동식 크레인, 트레일러 등 물류지원시설, 연구소, 검사소 등 관리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전남은 전국 어선 6만5000척 중 42%인 2만7000척을 점유하고 있다. /박종배 기자

부스/농막/컨테이너 맞춤형제작

안되는건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MK하우징

설치 예정날짜와 타입만 정해서 연락주세요



타입1. 컨테이너 3X6



타입2. 컨테이너 3X9



타입3. 농막 3X6



타입4. 농막 3X9



타입5. 휴먼부스



맞춤제작

☎ 010-6265-0057